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어 영화제'

제2회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 15~16일 개최... 양성평등 관점 영화 7편 무료 상영

제2회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어(MORE)영화제'가 15일 막이 오른다. 모어(MORE)영화제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산하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가진 영화를 상영, 지역에 양성평등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제는 오는 15~16일 이틀 동안 CGV 전주 고사점 8관에서 7편의 영화를 전편 무료 상영될 예정이다.

15일에는 생애구술사를 주제로 하는 개막작 '향림동 소녀'와 함께 감독 초청 GV 및 스페셜 토크가, 16일 폐막작으로는 '이슬란드가 멈추던 날'이 상영되고 공존과 변화를 위한 연결을 주제로 '기획토크'가 각각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색선과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15일 기후위기 색선에서는 △모피아이나 키친

상영 후 환경 관련 디스커버 토크가 마련되어 있다. 이튿날인 16일 모어영화 색선에서는 △쿠키 커피 도시락 △1층 보통 관람 후 관객과 함께하는 키워드 토크 시간이 마련됐다. 16일 오후 청년 색선에서는 △순자와이슬이 △특별 장학금 상영 후 청년의 꿈과 연대에 대한 상상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어(MORE)영화제'는 성평등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자리"라며 "다양한 가치를 모아 더(MORE) 좋은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어(MORE)영화제'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화제 사전 신청은 1일부터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http://www.jbwf.or.kr>)이나 센터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jb_genderequality/)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2회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어(MORE)영화제' 포스터

/정은성 기자

독립영화로 지역민과 소통 나선다

전북대박물관, 오늘 제24회 전북독립영화 초청작 2편 상영·GV 행사 등 진행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임혁용)이 지역민들과 독립영화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제24회 전북독립영화제 초청작 2편을 1일 전북대박물관 2층 강당에서 특별 상영한다.

이번 행사는 보다 확장된 지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초청작 특별상영 및 현장 스틸컷 사진 전시, 감독과 배우와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GV(Guest Visit) 행사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에는 금태경 감독의 <영화 영재 금태경> 상영을 비롯해 오후 4시에는 최정환 감독의 <은하수>라는 영화가 각각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감독과 배우들과의 소통하는 GV 행사와 현장 스틸컷 사진 전시도 진행된다. 특히 <영화 영재 금태경> 상영 후에는 금태경 감독, 강길우, 김휘규, 이가경 배우 등이, <은하수> 상영 후에는 최정환 감독, 김지훈, 김

나연, 김정은 배우 등이 참여한다. GV행사는 영화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부터 영화에 대한 감독과 배우들의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을 마주보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임혁용 박물관장은 "전북독립영화제 초청작 특별상영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영화를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선물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북독립영화제 초청작 특별상영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학예실(063-270-408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연합 사회공헌활동 펼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달 31일 고창군 성송체육관에서 ESG 경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지역 사회공헌활동은 재단과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협력해 200여 명의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합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자개공예 활용 옷칠 나무수저 DIY 키트 체험 △밀밭만 나눔 △환경정화활동 등이다.

재단은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 인식 확산



을 위해 ESG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친환경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번 활

동에는 '옷칠'을 활용하 나무 수저 자개공예 체험활동을 선보였으며, 밀밭만 나눔과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활동이 전통공예의 멋과 즐거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ESG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올해 정음과 부안, 군산에 이어 고창까지 총 5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으며, 11월에도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정책팀(063-230-741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종이로 가득 찬 미니어처 세계 여행

김제 벽천미술관, 2025년 1월 12일까지 'PAPER+JAM IN GIMJE' 개최

김제시(시장 정서주) 벽천미술관은 지난 30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12일까지 'PAPER+JAM IN GIMJE'라는 주제로 순회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 시군 공립미술관 협력망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된 작품 중 5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작품을 엄선했다.

전시는 종이(paper)로 가득 찬(jam) 미니어처 세계를 여행하는 컨셉으로,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술관에서 소개된 적이 없는 페이퍼 아트 작품을 어린이들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시 구성은 친환경 에코보드로 제작된 사자, 기린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 아프리카 초원 앞에 잉크병이 옆질러지며 아마존 강이 펼쳐지고, 그 위로 악어들이 떠나니며 멕시코 전통 솜brero 모자를 쓴 선인장 인형들을 지나,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가 어린이들을 반겨준다. 또한 강아지



인형(비슈) 꼬리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이지희 작가는 페이퍼 아티스트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 디자인 회사에서 광고, 정책 홍보, 기업 PR 등을 맡아 제작 팀장으로 일하다 독립했다. 본격적으로 TV CF, 기업 콜라보, 전시, 디스플레이, 상품 개발, 스톱모션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페이퍼 아트를 구현하며 활동 중이다.

정서주 김제시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의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간접적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문화적 경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향토명품전' 한국전통문화전당서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서 '2024 대한민국 향토명품전'이 열린다. 지난달 31일 전당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전당과 대한민국향토명품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기획전시다.

전시는 각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

품의 명품화·세계화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 대한민국향토명품협회 소속의 20여 명의 작가가 전통을 기반으로 재창조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한 이번 전시는 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프랑스 풍드리 예술창작협회, 협약 체결

프랑스 예술인들이 전주 한지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나서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당 원정실에서 프랑스 라 풍드리 블 드 크레이시옹 아티스트, 예술창작협회(La Fonderie Pole de Creation Artistique, 이하 풍드리 예술창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풍드리 예술창작협회는 2006년에 문을 닫은 페 알루미늄 주물공장에 설립, 예술가와 공예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분야를 탐색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50명의 예술가로 구성돼 회화, 조각, 판화, 사진, 공예, 캘리그래피(서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협회 소속의 문민순(Min Soon Moon) 재블작가와 안나 꼬르네를 방(Anja Komerp-Bang) 작가가 참여했다. 두 작가는 지난 10월부터 전당 전주전년한지관의 한지복합



문화공간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완성된 작품은 올해 12월 성과 발표를 통해 전시되며, 이후 전당에 1개 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술품을 보존하는데 있어 기능적으로 우수한 한지를 활용한 작품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내년도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의 일환으로 '국제한지기획전'을 추진해 전통한지를 활용한 작품 전시 운영에 의견을 모았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는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